“돈은 물처럼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硏 양정연 연구교수 타이완 싱윈 선사 불교 경제관 조명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기도 한다. 누구는 돈 이야기에 한숨부터 쉬지만, 누구는 돈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영유한다. 불교에서는 돈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존재라 말한다. 황금이 독사일 수도 있지만 도(道)를 닦고 법(法)을 전하는 자량(資糧)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중점연구소 양정연 연구교수는 〈인간불교의 경영과 실천〉을 출간해 불교의 경제관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책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인 타이완 포광산(佛光山)을 창건한 싱윈 선사의 경영 원칙과 체제를 바탕으로 재가불자들이 지켜야 할 경제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967년 싱윈 선사는 타이완 불교의 총본산인 포광산을 건립했다. 포광산은 12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소속 스님만 2000명, 신도 수만 100만 명에 육박한다. 또한 세계각지에 200개에 달하는 사찰을 거느리고 있다.

포광산은 단지 규모면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다. 양정연 교수는 싱윈 선사가 이런 대규모의 사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불자들이 어떠한 경제관을 지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건설해 갈지를 설명하고 있다.

포광산의 경제관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혜로서 금전을 대체한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며, 사찰의 경우 반드시 출가자가 머무르는 사원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한이 있는 자는 금전을 관리할 수 없고 금전을 관리하는 자는 권한이 없다. 돈과 권한의 분리를 재무관리의 준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승가에 귀속되고 물질은 균등하게 나눈다. 네 번째는 신도에게 저축한다. 다섯 번째는 여러 집안의 밥을 먹되 한 집안의 밥을 먹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신도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함부로 보시를 청하지 않는다.



포광산에서는 여러 집의 밥을 먹되 한 집안의 밥을 먹지 않는다. 보시를 받더라도 적은 돈을 여럿에게 받는 것이다. 사진은 2010년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스님들이 탁발 시연을 하는 장면 (현대불교 사진자료)

포광산은 청정한 재산이 없다면 청정한 법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개념이다. 불교에서 금전은 시방(十方)에 와서 시방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대중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잘 사용하려면 재산에 대한 건전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재산을 구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그러나 재산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으나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하듯이, 선(善)한 인연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인연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돈이 제 아무리 많다 해도 언젠가 다 써 버릴 날이 온다. 중국에는 “백만금의 재산이 한 가지 기술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배워 익힌 기술 하나가 그 어떤 재산 보다 나으며, 반야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돈보다도, 기술보다도 더 좋다는 뜻이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사구게를 수지한다면 그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법 보시의 경우 적더라도 그 공능(功能)이 무궁함을 말한다.

재산은 얻는 것 보다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돈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재산을 운용해야 하는가는 우리 생활에 더욱 중요한 과제다. 〈잡아함경(雜阿含經)〉에는 “한 몫은 먹는데 쓰고, 두 몫은 살림에 쓰고, 나머지 한 몫은 간직해 뒀다가 곤궁할 때 대비한다”라는 말이 있다.

돈을 아무리 번다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은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알 수 없다. 천재지변, 질병, 도둑으로 부터의 강탈, 불효한 자식의 재산 탕진 등 돌발 상황들은 축적된 재산을 잃게 만든다. 불경에서 이를 일컬어 재산에는 오가(五家)를 공유한다고 말한다.

싱윈 선사가 30여 년 전 대중들에게 설파한 경제개념들을 중심으로 번역된 이 책은 앞으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 새로운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인간불교의 경영과 실천 | 싱윈 편저 | 양정연 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중국 정원에는 선사상 담겨 조경학자가 본 원림문화



원림 | 박희성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1만8000원

선종은 중국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선종은 당 · 송대 사대부의 문화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른바 선취(禪趣)라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정원을 원림(園林)이라 부른다. 저자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박희성 연구교수는 선종이 중국문화에 많은 영향을 줬듯이, 중국의 원림문화에도 어떤 기여가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을 두고 원림에 대한 사의적 가치를 밝히고 있다.

조경학자인 박희성 교수는 ‘중국의 원림문화는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통해 원림을 이루는 사상과 배경을 파헤치지 시작했다.

당 · 송 시대의 사대부는 현실 모순의 해결점을 유가와 도가로부터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현실이 곧 이상이라는 선(禪)의 가르침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현실과 이상의 갈등 해소를 선종으로부터 얻었다.

당 · 송 이전의 원림은 가사 노동과 생산 활동, 그리고 유희로서의 기능적 역할만 해왔다. 그러나 당 · 송대를 거치면서 사대부가 시 · 서 · 화의 예술이론을 산수원림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원림은 기타 문예작품과 동등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른바 ‘시적 정감과 그림의 정취’라는 원림의 정신이 생겨난 것이다.

박 교수는 중국 원림의 공간 구성과 형태의 연원을 찾기 위해 당 · 송 시대의 원림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림을 만든 시대와 사람들을 주목했다. 당 · 송대를 전반적으로 개괄하는 시대연구와 사대부 탐구를 통해 사대부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종과 불교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박 교수는 안과 밖이 밝은 돈오와 돈오의 삶을 살려고 한 사대부, 또 그들이 풀어놓은 원림의 함의를 통해 산수원림의 경계 없는 경계를 밝히고 있다.

사대부들은 선으로 의경을 완성하고 능동적으로 살았으며, 경계에 자유로워 높은 정신세계를 향유했다. 그들이 머물고 행하는 모든 곳은 원림이었다. 당 · 송대 사대부는 경계 없는 원림, 경계 없는 자연산수에서 선으로 차를 마시며 시를 읊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중국 고전원림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책은 단순히 선취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원림을 하나의 조경 모델로 차용할 수 있도록 조경학적 지식도 소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6~2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희	불광출판사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7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8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아디야샨티	정신세계사
9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10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

계·정·혜 삼학의 가르침에 의지한 팔정도와 육바라밀 당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의 유훈을 찾아볼 수 있는 경전은 〈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반니원경(般泥洹經)〉 〈불본행경(佛本行經)〉 〈유행경〉 〈불소행찬〉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수반열반략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이하 〈유교경〉)은 오로지 부처님의 유훈만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최근 효관 스님은 〈유교경〉에서도 출가제자들을 위한 유훈만을 특별히 정리해 〈유교경 연구〉를 출간했다. 효관 스님은 진수정원(晉水淨源)의 〈불유교경론소절요(佛遺教經論疏節要)〉와 운서주굉(雲棲株宏)의 보주(補註)를 번역해, 〈유교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또한 〈불소행찬〉과 〈유행경〉 및 빨리어본 〈대반열반경〉 등 다양한 경전들과의 연관 관계를 고찰해 불교 전반의 교학 이해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방증 자료를 인용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유교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이르러 경계해야 할 가르침을 간략히 설한 경전이다. 〈유교경〉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말씀이 더해지진 않았다. 부처님은 평소 늘 하시던 법문을 입멸하시기 전까지 한 번 더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여래의 법에서 스승이 특별히 한 제자에게만 전하는 비밀스런 가르침은 없다’는 경전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다.

〈유교경〉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강조한 짧은 법요(法要)이다. 부처님이 〈유교경〉을 설하신 장소는 구시나라(拘尸那羅)의 사라쌍수 아래로, 열반에 드시려 할 때는 고요한 한밤중이라 소리조차 없었다고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 청정한 계를 지키며, 마음을 다스려 삼독과 오욕의 번뇌를 억제하고, 음식과 수면을 조절해 성내거나 교만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소욕(小欲) · 지족(知足) · 원리(遠離) · 정진(精進) · 불망념(不忘念) · 선정(禪定) · 지혜(知慧) · 불희론(不戱論)의 여덟 가지 공덕을 잘 닦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유교경연구 | 효관 역주 | 불광출판사 | 1만7000원

이은정 기자

바른정법.바른인연 II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써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 (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行(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써 경전과, 천수경, 이산혜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데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키 위해 구병시식, 천도재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재를 지내보니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 법 . 승 . 정법 .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대 중 일 동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 조석예불
-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욕바라, 신중작법봉청39위, 욕건이,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법고춤, 괘불이운

■ **강 주 :** 교무국장 **성우스님**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불교미술학인모집

◐ **교육지표 :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 **교육과정(2년제)**

1 – 1	1 – 2	2 – 1 2 – 2
• 불화기초(Ⅰ) 시왕초 등긋기	• 불화기초(Ⅱ) 보살초 등긋기 사천왕초 등긋기	불화 그리기 불화실습(Ⅰ,Ⅱ)
	• 채색 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 **단청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 **강 주 : 혜경스님**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 공통사항
- ■ **개강일시 : 2011년 3월 3일**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종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 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